

성 명	천 성 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본 <input type="checkbox"/> 간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유 <input type="checkbox"/> 지정
대 상	백암사무소에 공원 정화 봉사활동을 신청한 성인 자원봉사자 15명		
제 목	쓰레기가 쌓아올린 거대한 섬		
해 설 주 제	수용단계를 벗어난 쓰레기 처리 실태를 통해 쓰레기 적게 만들기의 중요성을 이해		
활 동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로 고통 받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공감 •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 공감 •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의 중요성 공감 		
해 설 재 료 (준 비 물)	캔 묶음 플라스틱 용품, 사진자료, 정화활동 물품(비닐, 집게, 장갑)	소요시간 (분)	8분
유 의 사 항	해설자 : 복장 점검 및 약속시간 준수, 교보재 등 준비물 확인 자원봉사자 : 안전사고 주의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 단계	해 설 주 제	주 요 내 용	준비물 (교구재)	소요시간 (분)
도입	자기소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 • 부상방지 스트레칭 • 해설 제재 소개 	-	2분
주제별 해 설	해양쓰레기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로 고통 받는 바다거북 • 쓰레기섬 소개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자료	1분 30초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쓰레기 발생 통계 • 우리나라 재활용 처리 통계 	사진자료	2분
	쓰레기 줄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이상의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문화 •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 	-	1분 30초
마무리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정리 및 사고예방 교육 	사진자료	1분

성 명	천 성 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본 <input type="checkbox"/> 간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유 <input type="checkbox"/> 지정
대 상	백암사무소에 공원 정화 봉사활동을 신청한 자원봉사자 15명		
해 설 주 제	수용단계를 벗어난 쓰레기 처리 실태를 통해 쓰레기 적게 만들기의 중요성을 이해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 단계	해설 주제	내 용
도입	자기소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정화활동을 함께하며 백암산지구를 안내 할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천성재입니다. 먼저 정화활동 간 부상예방을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부터~저를 따라서~ 여러분께서 자연과 국립공원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정화활동에 참여하신 걸로 아는데요, 자연과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쓰레기 관련한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정화활동 전에 들려드릴까 합니다.
주제별 해설	해양쓰레기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묶음으로 판매되는 음료수가 흘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용도의 1회 용품인데요, 별로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바다거북 사진) 이 사진을 보면 어떤가요? 바다거북의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번엔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노란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UN에 정식국가로 인정해 달라 신청하고 화폐와 여권까지 발행하고 있는 이곳은, ‘GPGP_Great Pacific Garbage Patch(태평양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의 땅)’ 라 불리다 이제는 ‘The Trash Island’ 로 나라 신청까지 한 북태평양에 있는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쓰레기 섬입니다. 조사팀에 따르면 섬을 이루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개수는 약 1조 8000억 개, 무게는 8만t이나 된다고 합니다. GPGP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단체는 2020년까지 GPGP 둘레에 떠다니는 장벽을 설치해 이곳의 막대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GPGP를 없애면 해양쓰레기 문제가 해결 될까요? 안타깝게도 북대서양, 인도양, 남태평양, 남대서양 환류가 흐르는 곳에 또 다른 쓰레기 섬이 4개 이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유명 관광지인 몰디브, 보라카이 등도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쓰레기들은 바다거북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바다생태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바다생물들의 몸에 축적되어 결국 우리들 몸속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설 단계	해 설 주 제	내 용
주제별 해 설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이야기들이 먼 나라, 또는 해양쓰레기만의 이야기일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쓰레기를 버린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49,915t으로 국민 1인당 하루에 0.95kg을 버린다고 합니다. 쓰레기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지켜져야 하는 국립공원만 해도 2016년 한 해 동안 1208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했는데,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탐방객 1명이 270g의 쓰레기를 국립공원에 버렸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몰래 버려져서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쓰레기양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쓰레기가 우리나라와 국립공원 곳곳에 버려졌을 겁니다. 수거되지 않고 자연에 방치된 쓰레기로 우리나라 야생동물들 역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고통 받고 있습니다.(너구리 사진) • 이런 자연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오늘 여러분께서 직접 정화 활동을 하러 오신 걸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분리수거도 잘 하실 겁니다.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 그것이 자연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여러분께서 고생해서 분리수거한 쓰레기들은 전부 재활용이 되는 걸까요? • 4월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이라고 불리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였습니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활용률은 2위, 에너지 재활용까지 포함한 재활용률은 10위로 34개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연간 260억 개의 일회용 컵을 쓰고, 국민 1인당 420개의 비닐봉지를 쓰며, 1인당 98.2kg의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우리나라에서 매립하는 양을 계산해보면 연간 41.6억개의 일회용 컵, 국민 1인당 67개의 비닐봉지와 15.7kg의 플라스틱을 매립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비닐봉지 분해 기간이 약 20년, 플라스틱 종류는 5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그 기간 동안 누적되는 양은 계산하기 힘들만큼 많은 양일 것입니다.

해설 단계	해 설 주 제	내 용
주제별 해 설	쓰레기 줄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이 고통받지 않게, 쓰레기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을까요? 네, 재이용·재활용·자원 회수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나날이 늘어나는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먼저 일 겁니다. 매장에서 마시는 커피도 일회용 용기에 마시고, 찬 음료를 주문했을 때 종이 홀더를 주는 것이 예의고, 비가 오면 일회용 비닐봉지에 우산을 넣었다 버리는 게 일상이고 문화가 돼 버린 요즘 시대에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런 일상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 혹시 몇 년 전 방송됐던 ‘인간의 조건’ 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현대 문명에서 당연히 되는 것들 없이 사는 체험을 하는 프로였는데요, ‘쓰레기 없이 살기’ 체험을 시청한 기억이 납니다. 불가능 할 것 같고 불편하기만 할 것 같은 체험이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와 조금의 노력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꼭 불편하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었는데요, 저와 여러분 역시 노력한다면 쓰레기 없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봉지를 쓰면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에 처해지는 케냐처럼 되지 않도록, (거북이 사진)쓰레기 더미에서 알을 낳아야 하는 거북이의 모습이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쓰레기를 조금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 그럼 이제부터 정화활동을 시작할 텐데, 정화활동 간에 계곡 주변, 난간 대 밑 등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칠 염려가 있는 곳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집게 끝이 날카로우니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분 뒤 일광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